

# 장애인 증오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교정과 복지의 융복합적 접근

신숙경  
전주대 재활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Disability Hate Crime: Convergent Approach of Correction and Welfare

Sook-Kyung Sh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Jeonju University

요 약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사전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의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고찰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에 대한 태도, 편견과 차별, 증오범죄(hate crime), 장애인증오범죄, 교정과 복지

**Abstract** Recently, hate crime is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in Korea, as well as in many countries, as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aversion to specific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hate crime in order to notify the seriousness of increasing hate crime, especially hate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some suggestions from the welfare poi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how to reduce these crimes utilizing the rep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newspapers as well as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Key Words** :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Hate crime, Disability hate crime, Correction and welfare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몇 년 전,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서부터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2016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이다. 평소 장

애인에 혐오를 느끼고 있던 시설 전(前) 직원인 용의자 우에마쓰 사토리는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2]. 그의 범죄 동기는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지역 사회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닌 장애인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범죄 사례 중, 지난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인 유학생

\*Corresponding Author : Sook-Kyung Shin(ssookk73@hotmail.com)

Received December 7,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January 5,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한명이 길을 가다 10여명의 백인 청년들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단지 그녀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사람들의 관심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3].

이에,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장애인 현황 및 생활 실태, 그리고 사회적 태도에 대한 사전연구들을 살펴보고, 증오범죄의 개념과 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증오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선행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 2. 선행연구 고찰

### 2.1 장애인 현황과 태도에 대한 이해

#### 2.1.1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주요 생활 실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된다. 이 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정신적 장애인이다[4]. 현재 우리나라에는 2,668,4천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 당 장애인 출현율은 5.39%이다[5].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기초 현황 통계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11,278,368명, 뇌병변장애인이 306,855명의 순으로 가장 많았고, 안면 장애인이 3,18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지표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7.2%, 여자 42.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4.4% 높았다. 또한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46.6%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0.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장애의 원인은 88.1%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56.0%으로 사고 32.1%의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5] 장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비장애인도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표가 장애인의 빈곤과 경제 상태에 대한 영역이다. 2017년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5],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7.1%로 2014년의 75.3%보다 1.8% 포인트 높아졌으며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5,1천원으로, 2014년의 16만 4,2천원에서 0.9천원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이 361.7만원인 것과 비교해 66.7%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2/3에 가까운 장애인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뇌전증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의 빈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데, 이들 장애유형에서는 10명 중 7명이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보면, 정신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아[5]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 2.1.2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나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달라진 자신의 신체와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어려움 또한 겪어야만 한다. 게다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때론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증오로 이어지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attitude)란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6]. Eagly & Chaniken (1993)은 태도에 대해 기억을 통해 형성된 대상에 대한 평가의 총합으로 형성된 신념과 대상에 대한 호감 또는 비 호감을 나타내는 개인의 평가이자 신념의 표현이라고 정의 하였다[7].

장애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있다[8-13].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감이란 타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나 사람들 간 감정에 적용되는 거리로 정의 된다[11]. 인용된 연구들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학생이었는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인 간 사회적 거리감이 실제로 존재 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장애인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8-14] 그리고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15-19].

또한 장애인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상기에서 인용된 연구들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이 있다는 사회현상과 실태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장애인의 태도변화에 대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장애관련 활동(자원봉사 혹은 장애체험 등 경험활동)이나 프로그램 및 교육(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나 통합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한 이후, 연구대상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9, 20-30].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그 만큼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장애태도의 결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다[5]. 또한 장애인 차별인식에 대한 최근 조사와 비교해 볼 때(2011년과 2014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장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79.9%로 매우 높았다. 즉,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장애인이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31].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기관 장애인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이 보고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영역 중에서는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이 다른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5,31].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가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40.3%, ‘유치원 입학·전학 시’ 37.1%, ‘보험제도 계약 시’ 36.4%, ‘중학교 입학·전학 시’ 33.0%, ‘취업 시’ 3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 생활 중 또래로부터의 차별 경험과 유치원·초중학교의 입학·전학 시 및 취업 등 진입 시점에서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특히 학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최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도적 확대과 맞물려, 보다 현실적인 교육 및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2.2 증오범죄 현황 및 실태

### 2.2.1 증오범죄의 개념

1980년대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한 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증오범죄(hate crim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증오범죄가 범죄 동기 분류표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증오범죄는 다른 유사한 다른 용어로 인용되기도 하는데[32], 첫 번째는 ‘메시지 범죄’라는 용어이다. 이는 범죄가 증오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범죄의 목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메시지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에서부터 발생하는 증오범죄, 즉 ‘편견 범죄’([1, 33] 혹은 ‘차별범죄’[32]로 불리기도 한다.

사실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법적규정과 사회적 정의가 다른데, 우선 미국의 경우 증오범죄는 ‘특정한 집단, 즉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에 관한 편견이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1].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증오범죄를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범죄'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 개인 간 발생한 치정이나 원한 의한 보복 등이 동기가 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1].

이에 조철욱(2012)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범죄분석에서 분류한 범죄자의 동기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증오범죄를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우선 사회나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로 발생하는 사회불만형이 있고,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복수형, 동성애자나 장애인 또는 노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형,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기정체성 갈등유형 그리고 국제결혼이나 근로이주에 의한 다문화 편견형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유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형태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1].

조계원(2017)은 증오범죄를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범죄라고 정의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범익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도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를 의미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증가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차별과 혐오사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33].

본 연구에서는 증오범죄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조철욱의 분류 중 편견형 증오범죄와 사회불만형 증오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편견형 증오범죄의 개념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부터 기인된 폭력적 행위로 인한 범죄'로 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2.2.2 증오범죄에 대한 국내외 발생 현황

먼저 편견형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FBI 보고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주요 도시에서 증오범죄가 거의 20%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교에 근거한 증오범죄가 거의 23% 증가하였고, 특히 반유대(anti-Jewish) 증오범죄는 37% 증가하였다[34].

또한 캐나다 토론토의 최근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해 2017년 증오범죄의 수가 증가하였고, 사건 숫자로는 145건에서 186건으로, 약 28% 증가하였다. 이러한 토론토 증가한 증오범죄의 주요대상은 종교와 인종 그리고 성적체성이 다른 집단이었다.

다른 나라의 증오범죄 보고서 중, 지난 10월 16일에 나온 최근 2년간(2017-2018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증오범죄 통계보고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결과와 비슷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년간 전체 94,098건의 증오범죄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17% 증가한 수치이다[35].

2015년 9월 17일자 국제엠네스티에는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서 외면 받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36]. 이 보고서는 노숙인과 장애인, LGV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성소수자들) 등의 소수자들이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의 경우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은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전으로 다루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을 조사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36].

조철욱이 분류한 사회불만형 증오범죄는 소위 말해 '묻지마 범죄'로 대표된다. 이 범죄와 관련하여 몇 년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 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37,38], 이는 또 다른 편견형 증오범죄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언론 보도되기도 했으나, 주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여성증오(혐오)범죄'로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잘못된 분노와 증오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33,39].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증오범죄의 심각성과 가

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총 270건으로 한해 평균 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12.6건에 달했다[37].

### 2.2.3 장애인대상 증오범죄 실태

장애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널리스트 캐서린 콰미(Katharine Quarmby)가 『가디언』에 흥미로운 글을 기고하였다[38]. 그녀는 영국의 민간단체 장애인증오범죄대응네트워크(Disability Hate Crime Network)와 온라인을 통해 1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사례를 모아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주로 범죄 행위자들의 성별과 인종, 나이 그리고 사건 장소, 공범 여부 및 범행의 예상되는 동기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가 증오범죄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이 길거리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1/5 가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와중에 당했다고 답했다. 그 외 사람들은 술집이나 가게에서,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했다고 했다. 범행자의 절대 다수는 백인이었다[41]. 또한 장애인 증오범죄의 절반 정도(49%)는 한 사람이 아닌 집단에 의해 일어났으며 집단 범행의 대다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성에게는 한 사람에 의한 범행이 더 많았다. 함께 조사를 진행한 장애인혐오범죄대응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왕립검조사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및 평등인권위원회와 공유해 이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41]. 이 글에 의하면, 장애인을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hate crime)의 원인이 되고,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 특정 집단에 혐오감을 가지고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테러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 행위라고 정의하였다[40].

장애인의 증오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보고서는, 앞서도 언급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증오범죄 통계결과이다(2017-2018년)[33].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증오범죄 중 76%가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이고 12%가 성적

지향과 관련된 범죄, 9%가 종교에 의한 증오범죄이고 마지막 2%는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범죄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8%(7,226건)로 보고되었다. 장애인 증오범죄는 2011년에 1,74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려 413% 가량 증가한 수치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인종관련 범죄가 같은해 35,944건에서 2018년 현재 71,251건으로 증가하여 약 198% 증가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35].

이러한 증오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같은 조사에 의하면, 2018년 5월말 현재 1,605건이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인종 증오범죄(928건)이었으나 장애인 관련한 증오범죄도 225건(4%)이나 발생하였다[35].

한국의 경우,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2010년 도입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다[42]. 이에, 장애인 증오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증오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과 관련된 통계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부정적 태도가 여전히 높은 수치로 존재함을 알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명회에서 집값 하락을 이유로 육설을 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국 장애인 부모님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사건[42]이나, 장애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언사를 하여 논란이 되었던 유명 유튜브 VJ 사건 등 우리사회의 일련의 사건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된 장애인 대상 증오 행위와 범죄가 사회전반에 걸쳐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3.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복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증오범죄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된 혐오심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증오범죄 행위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언어 폭력 사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38].

이에, 이러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오범죄

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처벌의 강화에 있어 최고형이 두 배, 세 배, 또는 그보다 더 높기도 하다[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증오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33]. 증오범죄법은 증오범죄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를 줄여 나가고 피해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또한 필요하다[33,42].

장애인 증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으로, 장애인이 국가의 복지제원을 낭비하는 사회적 무능력자라는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갖게 하도록, 실제적이고 다양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교,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 이르기 까지 교육기관 및 사업체에 소속된 학생 및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다[43].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실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오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탐색적 연구이다. 비록 증오범죄에 대한 범죄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 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차별과 혐오, 이로 인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현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는 여러 특정 집단들의 범죄행위 사례를 고발하고, 필요한 예방책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보고서 및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1] C. O. Cho. (2012). A Comparative Study on Hate Crimes of Korea and America,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12(1), 37-76.
- [2] Ex-Employees who Attacked the Disabled. Japan Hate Crime Raised as a Social Issue. (2016. 7. 26). *Korea Herald Business*, <http://www.korea-herald.com>.
- [3] J. Y. Kim & J. L. Lee. (2011). *A Study on Hate Crime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4]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Act*.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2017*.
- [6] I. Ajzen & M. Fishbein. (1977). Attitude- 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7] A. H. Eagly & S. Chaiken.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Orlando, FL: US.
- [8] G. J. Song, J. C. Lee & Y. O. Hong. (2001).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oward Social Stigmatized Groups, *Culture & Social Problem*, 7(1), 113-136.
- [9] J. S. Lee. (2005).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6, 151-176.
- [10] S. Y. Jeong & M. L. A. Gong. (2004). The Study of College Students Including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 People with Handicap and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Recognition under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Focused on How to Change after One Yea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3), 207-233.
- [11] M. O. Kim. (2003). A Study of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lf Concepts of Social Work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5, 138-167.
- [12] H. J. Park. (2009). A Study of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Studies in Local Government and Autonomy*, 13, 109-132.
- [13] S. H. Nho. (2011). *A Study on Attitudes of Sexually Handicapped Peers of Non-adolescent Adolescents to Sex*,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n.
- [14] B. Hunt & C. S. Hunt. (2000).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Undergraduate Rehabilitation and Business Majors. *Rehabilitation Education*, 14(3), 269-283.
- [15] H. H. Cha & H. Ki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of Pre-Service Education Teacher and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4), 385-297.
- [16] G. H. Mun & S. G. Park. (2010). A Study on the Attitude of Daycare Teachers for Disabled Preschoolers,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3(2), 119-135.
- [17] Y. S. Kim & M. J. Kim. (2014).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in Regular Schools and Special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2), 117-146.
- [18] M. S. Lee & S. H. Yang. (2015). An Analysis of Attitudes of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Regarding Social Relationship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1), 1-16.
- [19] S. M. Yun & J. H. Kim. (2016). Attitude of Physical Educators Toward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 Exercise*, 24(3), 113-124.
- [20] P. C. Favazza & S. Odom. (1997).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of Kindergarten-age Children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3), 405-418.
- [21] H. L. Kim, H. S. Pack & I. G. Lee. (2003). How can Volunteer Work in a Special School Setting Influence the Attitude Toward Disabilities and the Inter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 Exercise*, 11(2), 83-99.
- [22] H. W. Kim. (2003). The Effect of the Topic-Centered Reading Activity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Handicapped, *Journal of Reading Research*, 9, 89-116.
- [23] M. H. Yang & E. M. Lim. (2004). The Effect of Class "Modern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5(3), 203-223.
- [24] S. J. Kim, J. K. Kim, J. H. Kim & K. J. Kim. (2007). Effects of Activities of NIE Inquiry Community on the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9(1), 309-331.
- [25] M. D. Ha & E. J. Yoo. (2012). The Influences of a Disability-awareness program on th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1), 203-220.
- [26] H. S. Yoon & B. L. Jeon. (2013). A Decisive Factors on the Attitude for the Buddy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se of A Univers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4(3), 133-148.
- [27]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Inclusive Physical Class Applied Universal Design for Disabilities Attitudes and Class Participatio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a General Middle School,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 Exercise*, 22(3), 1-13.
- [28] M. E. Kwon. (2017). University Students' Changing Attitudes toward Disabilities During Special Education 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1), 145-167.
- [29] Y. J. Kim. (2016). A Study of Effect of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Acquir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erformed :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369-376.
- [30] E. S. Lee & S. Y. Yoon. (2016).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Focused on school and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455-461.
- [31] W. C. Oh. (2018).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3, 47-58.
- [32] H. J. Jo. (2016. 6. 28). The End of Discrimination is a Hate Crime. *The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042.html>
- [33] G. W. Jo. (2017). The Possibility and Regulation of Hate Crim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55, 65-97.
- [34] FBI Data Shows Sharp Rise in US Hate Crimes,(2018. 11. 13),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us-news/2018/nov/13/zi-data-hate-crimes-rise-us-report>.
- [35] Home Office. (2018). *Hate Crime, England and Wales*, 2017/1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ate-crime-england-and-wales-2017-to-2018>
- [36] Amnesty. (2015. 7. 17), *Poland: Targeted by Hate Forgotten by Law: Lack of A Coherent Response to Hate Crimes in Poland*,  
<http://www.amnesty.org/en/documents/eur37/2147/2015/en/>
- [37] J. M. Yang. (2018. 1. 15). Do not Ask Crime with no Reason Average Annual Average of 54 Cases. *Aju Business Daily*.  
<http://www.ajunew.com/view/20180115160705756>
- [38] J. S. Yoon, J. S. Park, S. H. Ahn, & M. J. Kim. (2014).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 1-179.
- [39] T. W. Park. (2016. 5. 19). Why the Kangnam homicide

case is a crime against women. *The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7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707.html)

- [40] K. Quarmby. (2015. 7.22). To Combat Disability Hate Crime, We Must Understand Why People Commit It.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5/jul/22/combate-crimesdisability-ha-understand-people-commit>.
- [41] K. Quarmby. (2015. 6. 24). Disability Hate Crime Motivation Survey.  
<http://katharinequarmby.wordpress.com/2015/06/24/disability-hate-crime-motivation-survey/>
- [42] J. G. Kim. (2017). *Response to Hate Crimes in South Korea: Key Issues and The Top Priority*, Institute of Police Policy.
- [43] W. S. Choi. (2018). The Legislation, Revision Progress and Plan for Legal improvement to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 Focusing on ‘The Disabled Welfare Act,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34, 237-269.

신 숙 경(Shin, Sook Kyung)

[정회원]



- 2001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학사)
- 2003년 12월 : 미국 서든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활행정 및 정책(석사)
- 2012년 8월 : 미국 서든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활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재활학, 장애인복지
- E-Mail: ssookk73@hotmail.com